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8. 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8 / 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맑은 가난
처음 마음으로	14	마음을 잘 쓰는 법
길상사 시간여행	18	길상사 시간여행을 떠나며
세계일주 시작이 반	22	볼국토 남산
시심청심	25	기도
낮은 음계로	26	내 인생의 간이역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0	화려하고 푸짐하고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4	내 탓이오
향기나는 우체통	38	설법전에서 출발한 수채화 여행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채남재 「자비의 눈」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1월 1일 발행 / 통권 275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부산모임 : (051)898-2672~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맑은 가난

-법정 스님의 명동성당 강론-

글·법 정(法 頂)

가난을 배우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은 경제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인간 존재입니다. 너무 경제, 경제 하면서 인간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규범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전통적인 가치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미국식 산업구조 속에서 쓰다가 버리는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물건뿐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고귀한 덕성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삼스럽게 가난의 덕을 배우고 익힐 때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규칙서 첫 장을 보면, '수도는 먼저 가난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고는 보리심, 진리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가난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스스로 억제하면서 선택한 맑은 가난, 청빈은 절제된 아름다움이며 삶의 미덕입니다. 마음속의 온갖 욕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전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아집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외부에 가득 차 있는 우주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스스로를

우주적인 생명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맑은 가난, 청빈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친절했느냐, 얼마나 따뜻했느냐?

청빈의 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따뜻한 가슴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둘레에 편리한 물건은 한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과연 행복해졌는가, 물어야 합니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밥이 되고 세탁이 되고 냉장이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연장을 쓰면서 행복을 얼마나 느끼고 그런 사실을 고마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살면서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따뜻한 정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머리만 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머리의 회전만을 중

시하는 사회는 아주 냉혹하고 살벌해집니다.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는 머리만 존재할 뿐 따뜻한 가슴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과 비리, 사기와 횡령, 한탕주의 등 사회악의 저변에는 간교한 머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가슴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인재를 뽑는 대학에서 머리의 회전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 써야 할 것은 오늘 만나는 이웃들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다면 내 안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에서 나오는 친절이야말로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이

웃을 사랑했는가를 두고 심판받을 것이다.’ 나 자신도 이 구절을 읽으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만나면서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가슴을 전했느냐? 생각하니 몹시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이 기뻐지고 이웃을 언짢게 하거나 괴롭히면 내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청빈의 덕이 자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청빈은 절제된 아름다움이며 수도자의 가장 큰 미덕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예전부터 깨어 있는 정신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가꾸어 나갔습니다.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청빈의 덕을 쌓으려면 만족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한정된 지구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까지 지구가 이대로 존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와서 한정된 자원을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풍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지구 자체가 자정력을 잃고 재생할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니노니 뭉니 하면서 지구 환경 전체가 커다란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고마운 자원을 함부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이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어머

니 지구가 몸살을 하고 증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궁핍합니다. 20~30년 전에 우리는 연탄 몇 장, 쌀 몇 되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고마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많은 것을 차지하고 살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옛말에 ‘위에 건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건주면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행복을 찾는 오묘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 줍니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인생에서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잡념 없이

이웃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인 나가르주나는 도둑맞은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대가 항상 만족해 있다면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도둑맞는다 할지라도 그대는 스스로 부자로 여기리라.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대는 돈과 재산의 노예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병입니다. 늘 갈증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번쩍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합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살뜰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성과 작은 것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살뜰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행복은 어려

운 이웃을 돕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일에서 피어나는 들꽃 같은 것입니다.

나는 산중에서 차마 받을 때마다 한 잔의 차를 우려 마시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삶을 고맙게 느낍니다. 산길을 가다가 무심히 피어 있는 들꽃을 보고도 행복해집니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와 같이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에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갈증 상태에 있는 것은 아름다움과 살뜰함을 잃어버리고 크고 많은 것에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은 자기 분수 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하나마저 잃게 됩니다.

내가 선물 받은 예쁜 다기가 있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중 똑같은 다기가 있어 구입해 왔더니 처음의 예쁘고 살뜰한 맛이 없어졌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애인이 둘이 되면 하나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소극적 삶의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물건에 집착하면 그 물건이 인간 존재보다 소중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비싼 물건 사다 놓고 친구들 불러 뽐내고 자랑치다가 가정부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납니다.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서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청빈의 덕입니다.

욕심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청빈의 덕을 쌓으려면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끔 언론에서 인터뷰를 할 때 스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개인적인 소원은 보다 간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책상 앞에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이라고 써서 주문을 외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엌 벽에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하게’ 이렇게 낙서를 해 놓았습니다.

단순과 간소함이란 본질적인 세계입니다. 단순과 간소함이란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필요 불가결한 것,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과 간소입니다. 복잡한 것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다른 경지, 그림으로 치면 수묵화 같은 것입니다.

그 먹은 단순히 검은 빛이 아닙니다. 그 속에 모든 빛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순과 간소는 다른 말로 하자면 침묵의 세계이며 텅 빈 충만의 경지입니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과 간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든지 넘치도록 가득 채우려고 하지 텅 비울 줄을 모릅니다. 텅 비어야 그 안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텅 비어야 거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갑니다.

한 생각 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거기서 어떤 영혼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텅 비었을 때 그 단순한 충만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열핏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기죽지 않고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의 사람이고 청빈의 화신입니다. 그것은 모자람이 아니고 충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욕심은 부리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수행자는 후세에까지 영원히 빛을 발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난을 강조하는 것은 공상스럽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넘치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옛 스승들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자는 뜻입니다.

청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생활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배우며 익혀 가야 할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생활규범이 되

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는 우리가 나누고 살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간디의 말처럼, 청빈의 상대 개념은 부자가 아니라 탐욕입니다.

절제된 미덕인 청빈은 그저 맑은 가난이 아니라 나누어 갖는다는 뜻입니다. 탐자貪者는 조개 패뿔 위에 이제 금수자를 씹니다. 빈자貧者는 조개 패 위에 나눌 분분자를 씹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조개껍데기가 했습니다. 화폐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손에 쥘 화폐를 나누는 것이 청빈입니다. 청빈이라는 말, 가난이라는 말은 나누어 갖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약 가난이 없었다면 나누어 가지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을 겪어 봄으로써 이

웃의 어려움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논리를 빌리자면 가난은 우리 자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과 나누어 가질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경제위기는 우리 자신을 떨어뜨리지 않고 높이 들어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들과 나누어 갖는 뜻을 거듭거듭 생활화시켜야 합니다.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살아 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과 겸손을 보다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모든 집과 움막은 반드시 흙과 나무로만 지어

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수도자가 사는 집은 흙과 나무로 지으면 자연히 검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도원을 그들의 소유로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 줄 안다면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순례자나 나그네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행의 목적에만 충실하며 그날그날 배우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옛 사람들은 어렵고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길 줄 알았습니다. 안빈낙도安貧樂道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선인들의 낙천적인 생활태도를 우리는 배우야 합니다.

우리 핏속에는 그런 낙천적인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라고 찌푸리고 걱정하는 태도만 가지고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관적인 생활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밤낮 우는 소리하는 집안은 울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잠도 잘 자고 낙관적으로 웃는 사람은 웃을 수 있게 삶이 열립니다. 명상 서적을 읽어 보면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근심 걱정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밝은 마음을 지니고 낙관적으로 밝게 살면 밝은 기운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집안이든지 근심 걱정은 다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고민거리가 없을 것 같아도 각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제 각자 인생의 무게이고 빛깔이

고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시다.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들 손해 본 것이 아닙니다. 또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한 물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고 부유한들 죽음 앞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을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관리를 잘하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되고 관리를 잘못하면 당장 회수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살 만큼 살다가 인연이 다해서 저 승사자가 찾아올 때나 하느님께서 부를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옛 시조가 있습니다.

십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돌려놓고 보리라

이런 시조야말로 청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문명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자연은 사람을 거둬나갑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 때 사람은 시들지 않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벽이 무너져 남북이 트이고
추녀가 성글어 하늘이 가깝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게
바람을 맞이하고 달을 먼저 본다네

화엄경의 이치에 통달했던 환성 지안선사의 계송입니다. 스스로 선

택한 청빈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고 삶의 운치입니다. 옛 사람들은 가난을 풍류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인간의 길이고 정상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리막길은 쉽고 편리하지만 그 길은 짐승의 길이고 구렁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르막길을 통해서 뭔가 빼근한 삶의 저항도 느끼고 창의성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지도 다지고 우리는 거둬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거둬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흥청거리면서 과시하고 과소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에 옮긴 글은 1998년 2월 24일, 법정 스님이 명동성당에서 말씀하신 강론을 현장스님이 다듬어서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책읽는섬)'에 수록한 글입니다.

마음을 잘 쓰는 법

클 • 덕 일(德日)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일 년 중 오늘이 벌써 동안겨 결제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분들과 우리 절 길상선원 동안겨 입제 대중들께서 결제 법회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며, 이름도 모양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서산대사가 지으신 <선가귀감>이라는 책의 구절입니다.

오늘은 겨울안거를 시작하는 결제일이고 또 우리 절에서는 이 기간 동안

안에 관음백일기도를 올리는데 오늘은 그 입제를 하는 날이므로 결제를 하는 마음, 기도를 하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마음 잘 쓰는 사람의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룡영화상을 수상한 76세의 배우 나문희씨는 간단한 수상소감 하나로 좌중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대화합적인 상생의 멘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딸은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했고 그만큼

자신의 신앙 또한 존중받아야함을 웃음을 섞어 강조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느티나무, 법정스님은 소나무와 같다.”

이해인 수녀 역시 불자의 신앙과 천주교의 신앙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맑고 향기롭다면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신앙의 품격과도 같은 의미이겠지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부처님”

60년 가까운 연기 인생을 단단하게 다진 나문희씨는 나의 세상과 타인의 세상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유쾌하게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수상소감이었지만 나문희씨의 밝은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흔히들 수상소감의 단골 멘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멘트가 서슴없

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작은 마음,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견입니다. 대중문화시상식은 국민들을 웃고 울리며 위로해준 문화예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사의 인사는 개인적으로 전하고 큰마음을 갖고 내어 대중들과 소통하는 수상소감이 절실할 때입니다.

다시 말머리에서 말씀드렸던 서산대사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스님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란 서산스님의 결만 아니라 우리들의 결, 더 정확히 말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 가운데도 되고 이 세상 어느 곳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건 간에 이 한 물건이 있는데 도대체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 물건은 본래부터 있었으므로 새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태어난

일이 없으므로 죽는 것도 아니며, 무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 모양을 알 수도 없는 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버리면 아마 도를 통하는 것 일겁니다. 이른바 견성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 한 물건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일까요? 부처님일까요? 귀신일까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자애스런 마음 등 이런 한량없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양을 알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있다면 “이것이 다”라고 내 보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리 찾아도 드러내 보일 수도 없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불성인데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 마음일 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안거 삼동 결제를 시작하는 날이므로 좀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불성이니, 진여니, 한 물건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처음 건너와서 한 무제와 대화하는 가운데 무제가 달마스님에게 묻기를 “당신은 누구요?” 하자 달마스님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른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 ‘모른다’하는 모름이 아니라 바로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르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까다로운 말은 그만하고 좀 더 쉽고 우리생활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남편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

면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는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 즉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복을 얻어내려면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를 하는 것이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이유는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하는 데에 따라 마음이 정신 없이 치닫기 때문에 본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치는 바다에서는 바다의 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깨닫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선 마음을 쉬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삼동결제와 더불어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 마음이 앞으로 석 달 열흘 동안 변치 않고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조복시켜 마음을 한곳에 잘 묶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안거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기도정진 하셔서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을 제거하고 부처님의 혜명(惠明)을 잇겠다는 불제자로서의 각오를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옵니다.

날마다 부처님 되소서!

- 불기 2561년 동안거 결제 법문
(2017년 12월 2일)

길상사 시간여행을 떠나며

글 • 홍정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吉祥寺)는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사찰(21교구 송광사 말사)로 삼각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고급요정 '대원각(大苑閣)'을 운영하던 김영한(1916~1999) 여사가 1987년 '무소유'를 읽고 감동하여 법정 스님에게 7,000여 평의 대지와 40여 동의 부동산을 청정한 불도량(佛道場)으로 가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세월동안 청하여 1995년 그 뜻이 받아들여진다.

법정 스님은 1995년 6월 13일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의 말사인 '대법사'로 등록하였다가,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로 사찰 명을 바꾸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역사적인

개원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김영한 여사는 법정 스님으로부터 백팔염주 한 벌과 길상화(吉祥華)라는 불명(佛名)을 받았으며, 한국 가톨릭의 수장인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 총무원장 월주 스님, 장익 주교님, 박청수 원불교 교무님 외 종교계의 큰 어른들이 참석하여 길상사의 개원을 축하해주었다.

길상사 경내에는 극락전, 설법전, 지장전, 범종각, 관세음보살상, 길상보탑, 길상화 공덕비, 사당, 법정 스님 진영각, (사)맑고 향기롭게 등이 있으며, 사찰의 대응전격인 극락전에는 주불로 아미타부처님을 좌우

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 봉안하였다. 그리고 사천왕문이나 불이문이 없이 대원각 시절 솥을대문을 그대로 일주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원각 시절의 건물을 재정비하고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전국의 불자들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수행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길상사는 다른 사찰에 비해 종교 화합과 나눔의 실천이 활발하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가녀린 모습의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이 보살상은 불교와 가톨릭의 만남이 빚어낸 섬세하고 오묘한 불상으로 길상사를 찾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반겨주고,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길상사 경내에서는 수녀님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또한, 2008년부터 덕수교회, 성북성당과 종교연합 바자회를 함께 열어 수익금을 전액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맑고 향기롭게'라고 적힌 노란 앞치마를 입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주 밑반찬을 조리하는 (사)맑고 향기롭게 반찬나눔 봉사자들이다.

그리고 2012년 법정 스님과 길상화 보살의 깊은 뜻을 기리고 종교화합의 의미로 영안그룹 백성화 회장이 석탑을 무상 기증하여 그해 11월 11일 봉안하였으며,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신 법정 스님을 기리는 진영각(眞影閣)을 2013년 3월 7일 개원하여 법정 스님의 유품과 집필하신 저서를 간소하게 전시하고, 진영각 마당 화단에는 유골을 수목장으로 봉안하여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많은 이들의 심성을 맑혀 주고 있다.

길상사 사찰명 앞에는 '맑고 향기



롭게 근본도량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급 요정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 여사가 1987년 겨울 법정 스님에게 7,000여 평의 대지와 건물을 부처님 도량으로 기증하기를 오랜 세월동안 청하였으나, 법정 스님은 몇 차례나 거절한다. 그러던 중 1992년 4월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홀로 수행 정진하던 스님은 1993년 8월 '살벌하고 삭막한 현실에 푸근하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우면 어떻게 하는 소박한 생각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하게 된다.

1994년 1월 서울 종로 운니동의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을 빌려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회원들이 모임 장소가 없어 이 절 저 절 남의 신세를 져야 했다. 당시 조계종 폭력사태 등 사회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하였지만, 평소 스님의 글을 읽고 존경해오던 많은 분들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에 뜻을 같이하고자 동참이 줄을 잇고 있었다.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기증하여 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김영한 여사는 몇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뜻에 변함이 없었다. 결국 청학 스님을 비롯한 맑고 향기롭게 창립 임원진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1995년 법정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시절인연이니 어쩔 수 없다. 절은 개인의 사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전통적인 승가

의 규범이다.” 하시며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본원으로 등록하여 길상사를 창건하게 된 것이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 창건 기념법회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길상사는 없었을 거라.” 하였는데, 특히 창건 11주년 법문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몸과 마음에 전율 같은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제 자신이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은 길상사가 존속하는 한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렇듯 70년대 큰 규모를 자랑하던 '대원각(大苑閣)'이 부처님의 시절인연(時節因緣)을 만나 삼각산 길상사(三角山 吉祥寺)로 현판을 바꿔 단

지 20년이 지났다. 그리 길지 않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불자들이 서울의 성지순례지로 찾고, 여러 시민들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으며, 여느 사찰과 다르게 가톨릭 수녀님들이 즐겨 찾는 사찰이 되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기까지 염려하고 보살피 주신 많은 분들과 소임을 보아 온 스님과 신도들의 은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길상사의 과거 자료와 역사를 기록하고 모아둔 자료집이 없고, 사지(寺誌)가 없다.

현재의 결과를 있게 한 과정이 역사이고,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보이지 않게 공덕을 실천하신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남겨진 자료들을 참고하여, '길상사의 시간여행'이란 글 꼭지로 소소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그러나 배움이 얇고 글재주가 없어 본래 취지를 훼손하거나 일그러뜨려놓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불국토 남산

글 • 강인철(작가)

일찍 서둘렀더니 아침 햇살이 산자락 사이를 비집고 밝게 마중을 한다. 산이 거기 있어 산에 간 게 아니라 이 산을 올라 보기 위해 여러 해를 공들여 온 터라 여간 새삼스럽지 않다.

남산! 신라 천 년의 고도 서라벌 남산이다.

삼능골과 용장골을 잇는 서남산 코스, 초입부터 예사롭지 않은 소나무들이 빼곡하다. 수백 년은 묵었음직한 노송들이 승천하는 용처럼 파리를 튼 채 위용을 뽐내며 하늘 향해 뻗어있다. 애국가 2절의 가사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의 주인공이 여기서도 영락없다. 그 숲속 가운데에 8대 아달라왕과 53

대 신덕왕 그리고 54대 경명왕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

삼릉(三陵)을 지난 골짜기에서 처음으로 불상을 만났다. 꽤나 큰 석조 여래좌상이었는데 애석하게도 머리 부분이 없다. 계곡에 묻혀 잠자고 있던 중 홍수가 지나간 뒤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니 이 또한 부처님의 원력이었나 보다. 불두(佛頭)는 없지만 옷 주름이 바람에 펄럭일 듯 생생하고 힘차게 내민 가슴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솟는다.

이곳엔 유난히 부처가 많다. 말하자면 부처님을 테마로 한 산이다. 신라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도읍지의 남쪽 산자락에 자신들이 그리던 마

음속의 부처를 하나하나 새겨 놓았는가 보다. 어떤 이는 다소곳한 할머니 부처를, 어떤 이는 영혼의 깊이만큼이나 키가 큰 부처를 정성껏 모셨다. 또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일구월심 기다렸는지 부처의 입술에 붉은 색을 곁들였고, 국운이 영원하길 바랬을까 호국탑을 산마루 여기저기에 앉혀 놓기도 했다.

중장비 하나 없던 그 옛날에 이토록 험한 산등성이의 단단한 바위 돌을 떡 주무르듯 정으로 쪼아 어찌 저리 멋진 불상과 불탑을 모실 수 있었을까 열린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불심이 아니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 싶다.

정상이래야 고작 해발 468미터이니 북한산 백운대의 절반쯤밖에 안 되는데도 올라보니 꽤나 거친 산이다. 그 산마루 깊은 곳 용장사에 머물렀던 김시습이 예서 금오신화를 지었다 하여 남산 제1봉의 이름이 금오봉이다. 사방이 온통 화강암 석산

이라 발 디딜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리 험한 산을 선조들은 외려 역발상으로 기지를 발휘해 하늘 아래 나만의 캔버스로 활용한 셈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만 해도 절터 150여 곳에 불상이 약 130구요 석탑 100여 기에 석등이 수십 개라는데 아직도 땅속에 얼마나 더 많은 유물이 묻혀 있을지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무언가가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 산이 불국토요 온 백성이 불심에 의지하며 살았던 신라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거기 배어 있었다.

골짜기마다 그들의 정성이 비껴가지 않은 곳이 없다. 문화재가 있어 남산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남산 자체가 문화재라는 생각이 절절하다. 이미 유네스코는 십수 년 전에 이 산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국보의 반열에 올라있어 더욱 자랑스러운 칠불암 마애불에 합장을 하고

숨이 턱에 찰 만큼 한 번 더 오르면
신선암에 닿는다. 거기서 하늘을 올
려다보면 구름과 맞닿은 곳에서 부
처님이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어서 오라' 중생들을 반긴다.

올려다봤을 때의 남산과는 달리
금오봉에서 내려다 본 느낌은 전혀
달랐다. 저 아래 사바세계의 사람 모
습은 하도 작아서 아예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 삶들이 가여워서였을까.
산등성이에 서 있는 불상들의 눈망
울에 깊은 연민의 정이 가득하다.

산 위와 아래 세상은 너무 달랐다.
사람들은 그 다름을 깨닫고 싶어 기
를 쓰며 남산에 오르는지도 모른다.

저 아래 기린천이 흐르는 먼 곳으로
시야를 던져본다. 인간을 먹여 살리
고 난 빈 들녘이 하늘 아래 누워 있
다. 그 한복판에 까만 줄이 하나 그
어져 있다.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
개미떼처럼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바빠 내달린다.

우리에게 불심은 무엇인가? 라고
아까 보았던 선각육존불이 등 뒤에
서 자꾸만 묻는다. 간곡한 염원을 담
아 마음속에 부처 하나를 새기며 한
걸음씩 내딛는다. 불적지(佛蹟地)에
서 바라본 탓일까. 온 누리가 평화
롭기만 하다.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21」 가을호로 등단했고,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홍보대
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5부자 라이브 인 USA> <이름이 뭐
길래>가 있다.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 글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방법 :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기도

글 •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 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 달라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 낼 가슴을 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할
친구를 보내 달라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 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열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 • 시인. 인도 출생으로 벵골 문예 부흥의 중심이었던 집안 분위기 탓에 일찍부터 시를 썼고 16세에는 첫 시집 <들꽃>을 냈다. 초기 작품은 유희적이었으나 갈수록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졌다. 교육 및 독립 운동에도 힘을 쏟았으며, 시집 <기탄잘리>로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내 인생의 간이역

글 • 전 민(작가)

덜컹이는 기차가 남녘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눈 내리는 산과 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뻑뻑했던 감성의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했다. 좋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리던 남편의 말에 주저앉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술밥을 먹은 지 십 년하고도 오 년을 더 보태고 난 뒤 감행한 홀로 여행이었다.

차창 밖으로 송이 눈이紛紛히 흩어졌다. 타성에 젖어 지루한 일상을 살아내다 일탈의 기분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기차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눈발이 굵어졌다. 나는 웬지 눈 내리는 풍경을 볼 때마다 닥터지바고와 라라의

테마가 자동으로 떠오른다. 마음으로 듣는 발랄라이카의 선율. 눈 범벅이 된 코트자락을 끌고 우랄산맥의 산촌에 찾아든 '유리'의 모습이 어릿거렸다. 라라와 유리의 길 위에 노상 내리던 눈, 그 눈이 내리는 것이었다.

귀하게 얻은 황금 같은 시간, 나는 무성하게 뻗은 상념의 가지를 자르고 은밀한 세계를 동경한다. 열차가 목적지에 다다랐다. 빗고을에서 일행을 만나 정읍 백양사 언저리로 갔다. 4층 건물 일층 벽면에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알을 막 깨고 나온 새에게 주는 상. 나는 쑥스러운 얼굴로 단상에 나가 등단패를 받았다.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누군가 꽃다발을 안겨줬다. 기쁘고 뿌듯하지만 부담도 되는 문단면허증을 들고, 저 영화 「25시」의 게오르규처럼 사진을 찍었다.

저녁을 먹은 뒤엔 여흥으로 이어졌다. 나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코트 깃을 올렸다. 정결한 산사의 풍경을 가슴에 담고 싶었다. 또록 또록한 별들을 보고, 산봉우리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소릴 들었다. 한 쌍의 남녀가 저만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자박자박... 그들이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판소리가 흘러나왔다. 창자를 굶어내는 듯한 가락에 친구의 얼굴이 오버랩됐다.

넉넉하진 않아도 부러울 것 없이 잘 살던 친구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어린 남매를 둔 친구의 나이 서른아홉이었다.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나기도 하는 게 삶이라고는 하지만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비틀거렸다. 실은 등단작으로 뽑힌 글도 그때의 충격과 황망함, 그리고 발인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를 적은 것이었다.

오장 육부를 휘감고 나오는 판소리 가락에서 갈 길이 아득한 여인의 슬픔이 배어 나왔다. 밤이 깊어갔다. 숙소로 돌아오니 문학에 대한 담론의 열기가 뜨거웠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풀어놓는 선배들의 입담에 시간이 어찌 가는 줄 몰랐다. 그날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보다 앞서가는 이들에게서 받은 느낌, 어디론가 높이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짓 같은 이미지는 또렷이 남아있다.

동선이 짧던 아기 새가 우연히 강가로 나와 바라본 너른 별판은 신기루였다. 은빛 역새가 손을 흔들었다.

두렁에 납작 엎드린 작은 풀들이 햇살을 마중하며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강 건너에서 깃발이 펄럭였다. 가진 것 없이 세상을 건너는 방법은 꿈을 꾸는 일이다. 아 기 새는 알 수 없는 어떤 기포가 스펙트럼을 이뤄 죽지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안개가 걷히면 거뜰히 날아갈 수 있으리라. 두려움을 버리고 바람에 깃털을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강나루에 닿을 것이다.

새 날이 밝아왔다. 눈은 밤새 소리 없이 더 많이 쌓였다. 길이란 길은 모두 눈 속에 숨어 버렸다. 금세 눈사태라도 일어날 것 같은 폭설이었다. 무장무장 내리는 함박눈의 모습은 고요한 피안의 세계였지만 교통이 두절되는 사태로 번지고 보니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립인가. 주춧 축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비상작전을 세우느라 법석을 떨었지만 나는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야누스였다.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은근히 고립되길 바라는 두 마음. 기상이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명분 아래 신세계로의 잠입을 원했던 것일까.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산속을 빠져 나왔다. 미련이었던가. 자꾸 뒤를 돌아다봤다. 눈 덮인 길을 달려 다시 역 광장에 다다랐을 때 안도의 숨을 쉬며 성낙희의 시 한 구절을 되뇌었다.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비로소

이 흰 바람 속에

먼 구름 먼 하늘

언 땅에서 올라오는

청보리 새순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며 내달리 조용히 날개를 펴고 있었다. 려다. 내 안에 들어있던 티티새 한 마

전민 ·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경영학을 공부했다. 『수필과 비평』과 『에세이문학』으로 등단했고, 맥심문학회(현, 동서문학)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에세이문학 편집위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북촌시사, 담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유행이 지나거나 안 입는 청바지를 의류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치가 큰 자원으로 인식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자연사업의 일환으로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방치되어 있거나 버리려던 청바지를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류폐기물은 2008년 5만 677톤에서 2014년 7만 4361톤으로 6년 동안 3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의류폐기물 중에서도 청바지는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썩거나 태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단으로만

보면 좋은 요소가 많아 재활용 가치가 크지만, 폐기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내주신 청바지는 의류리폼 봉사자가 예쁘고 튼튼한 에코백으로 재탄생시켜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까지 도울 수 있는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려하고 푸짐하고

글 • 권오분(작가)

사람들은 소박한 밥상이라는 말을 잘한다. 그 소박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촌스럽고 투박하다는 뜻인지 알쏭달쏭하다. 하여간에 우리네 일상 풍습이었던 '상다리가 휘어지도록'이라는 표현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많이 차리고도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라는 표현을 쓸 만큼은 아닌 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손님 초대해 놓고 서양처럼 비스킷이나 케이크 한 조각에 차를 곁들인 차림은 서운해 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네 정서다. 약간은 서운할 수 있지만, 간단하고도 예쁘게 차와 곁들이거나 밥반찬으로도 꽤 괜찮은 요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금 간을 한 밀가루 반죽을 너무 되게 하지 말고 약간 묽은 듯 미리 풀어놓고 그 밀가루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한다. 재료들을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남겼다가 쓰면 더 좋다. 해산물이나 육류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남은 채소들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여러 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새우나 돼지고기, 오징어를 다지고 버섯들도 잘게 썬다. 붉은 피망, 푸른 피망, 부추, 당근, 붉은 양배추와 양배추, 애호박, 쪽파, 양파, 풋고추, 잘 익은 신 김치를 모두 잘게 썰어서 넓은 접시에 예쁘게 색을 맞추어 담아 놓는다. 준비물을 보기 좋게

담아 놓는 것도 행복한 요리의 첫걸음이다. 신선한 채소들을 송송 썰어서 놓으면 그 색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늘 자연의 신비로움에 눈과 마음이 즐거워진다.

말을 펼치니 복잡한 것 같지만 있는 것 썰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미리 개어 놓은 밀가루를 그릇에 한 국자씩 덜어서 준비한 채소들을 색이 엷은 것부터 섞어서 부친다. 그릇 하나에 계속해서 덜어 쓰기 때문에 설거지도 많지 않다. 준비된 채반이 없으면 종이 타월을 깔고 겹치지 않도록 펼쳐 놓는다. 불을 알맞게 조절하면서 한 손가락씩 팬에 동그란 모양으로 노릇노릇 조금 바삭한 느낌이 들도록 지져 내면 무척 먹음직스럽다. 손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올리브기름이나 포도씨 기름을 사용하면 손님에 대한 정성도 두 배가 된다. 그리고 가능한 상황이면 나뭇잎을 접시 바닥에 깔거나 무늬가 예쁜 종이 타월을 깔아

도 그럴듯하다.

자투리 재료들을 남겨 두었다가 만들 수 있는 초간편 요리 중에 이만큼 맛있고 예쁘고 영양 만점인 요리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재료만 미리 손질해 두면 찻물이 끓을 동안에 충분히 한 접시의 요리가 완성된다. 이름 있는 한식집에서는 호박전이나 표고버섯전을 한 상에 네 쪽씩 주는 데 한꺼번에 예닐곱 가지의 전이 차려지면 얼마나 그럴듯한지는 상상만으로는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내 머릿속은 전을 부칠 때 나는 지글지글 소리와 각종 재료가 익을 때 내는 향기와 각색의 채소나 해산물, 고기들이 익어가면서 변화되는 색의 아름다움이 눈과 코와 혀를 모두 자극하는 것 같아서 군침이 고이고 행복하다.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재료들이 날 것에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익어가는 과정을 살피면서, 냄새를 맡을 후

각과 색깔의 변화를 살필 시각과 불 위에서 음식물이 익어갈 때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을 열어 두어야 행복한 음식 만들기를 할 수가 있다. 기왕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면 행복 지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부름받은 손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적당히 식은 전은 색깔을 맞추어 보기 좋게 큼직한 접시에 담아낸다. 예쁜 앞 접시 하나씩 놓아두고 무늬가 고운 냅킨을 깔고 젓가락만 놓으면 깔끔하고 맛깔스런 상차림이 완성된다. 전에 들어간 재료들을 설명하며 하나씩 하나씩 맛을 보노라면 오직 전 이야기 하나로 시간은 저절로 흐른다.

재료에서 나오는 수분의 농도와 맛들이 모두 다르므로 똑같은 소금간을 한 요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쫄깃쫄깃한 오징어, 쫀득하고

밀랑밀랑한 조갯살, 향기로운 새우, 그리고 채소들이 지닌 각각의 질감과 맛과 향이 그저 신비롭기만 하다. 늘 혼자 신이 나있으면 남편이 놀린다.

“당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차려 준 거 맛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깐 그냥 맛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말아야.”

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하얀 거짓말에 속하니까 그들도 나도 행복 지수에 뺄셈표는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나 돈,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욕심의 수치를 조금 낮추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내가 받는 이보다 훨씬 행복해지는 것을 가슴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다 보면 그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요리처럼 말이다.

너무나도 훌륭한 재료 하나로도 맛난 음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소박한 밥상에서는 여러 음식 재료가 어우러져 우리나라 국물을 최고로 여긴다. 여

러 음식 재료들의 어울림. 얼마나 멋지고 향기로운가! 이런 멋지고 향기로운 음식을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멋지고 향기로운 삶인가!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소박한 밥 한 끼의 정성이지만 그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어머니의 밥상처럼 따뜻하다.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2018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와 본 모임 홈페이지(http://www.clean94.or.kr)에서 회원가입 후,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인터넷)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문의 : 02-741-4696)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본 모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내 탓이오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당신이 옷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화가 나요!”

남편이 옷을 정돈되게 걸어놓지 않은 것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니? 네가 이렇게 놀면 얼마나 짜증나, 치우면서 놀라고 했지?”

7살 아이가 장난감을 온 방에 가득 늘어놓고 놀다가 거실에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니 까 화가 나요!”

아내가 7살 아이에게 장난감을 치우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이 3종류의 대화에서 화나게 만든 것은 상대의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편이 옷을 흐트러지게 걸어서, 7살 아이가 장난감을 안 치워서, 아내가 아이에게 소리치며 말해서.

내 느낌에 대한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내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자극일 뿐입니다. 원인은 아닙니다. 흐트러지게 걸쳐놓은 옷을 보고 기뻐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저렇게라도 걸기 시작하니 다행이군!’ 하고 생각하고 “옷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보니 기쁘네요.” 라고 말합니다. 정돈되게 걸기를 바라는 아내와 흐트러지게라도 걸기만을 바라는 아내, 즉 바람이 다른 것입니다.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

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내 느낌의 원인은 내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탓입니다.

내게 생기는 느낌을 인식하면, 이 때 나의 바람이 무엇이어서 이 느낌이 생기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 합당한 바람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면 나의 바람을 바꾸어 볼 수 있지요. 바람을 바꾸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습관을 만들고, 평생 그 습관에 의하여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고 하지만 습관을 바꾸기는 무척 어렵지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지도하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정돈되게 옷을 거는 것에 서툰 사람이라면 처음은 흐트러지게라도 옷을 거는 습관을 들이도록 적어도 100일은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 반듯하게 옷을 거는 습관으로 변화하는데도 또 긴 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1층에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바로 3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힘들게 2층을 올라가야 하고, 다시 힘들게 3층을, 4층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에 바로 3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위의 상황을 ‘나의 바람이 무엇인데 그것이 안 된 것을 보니 화가 나요’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적어보세요. 남편이 옷을 정돈되게 걸어놓지 않은 것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
“_____화가 나요!”

아내가 7살 아이에게 장난감을 치우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하는 말,

“_____ 회가 나오!”

여러분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나요? 정리정돈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흐트러뜨리기는 쉽지만 정리하고 치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보호자는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정리정돈하는 습관이겠지요. 7살 어린이가 신나게 장난감을 늘어놓고 논 후 그것들을 정리정돈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몇 살이 잘 할 수 있는 나이인지 물어볼 텐데, 그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과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기(2세~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정리정돈이 보호자의 몫입니다. 단, 아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즐거운 정리정돈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정돈 후 간식을 먹는 것

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리정돈으로 매번 보호자와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놀이를 시작하면서도 나중에 치워야 하는 것에 마음 한 귀퉁이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우는 것이 하기 싫은 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즐거이 치우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초등학교 이후에 정리정돈의 습관을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남편이 옷을 정돈되지 않게 걸어놓았다면 이렇게 말해보실래요?

“당신이 옷을 정돈되게 걸어놓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나오! 내일은 요렇게 정돈되게 걸어주실래요?”

아내가 7살 아이에게 장난감을 치우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남편은 공감대화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하기를 바라는데 소리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럽게 말해줄래요?”

7살 아이가 장난감을 온 방에 가득 늘어놓고 놀다가 거실로 나와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화를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공감해주세요. 보호자가 치우세요, 아이의 능력에 맞추어 치울 수 있는 부분만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구나? 엄청 재미있었어?”

“네,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치우고 고무마 간식 먹을까? 재미있는 노래 부르면서 치울까?”

“네, 만화영화 노래 부르면서 치워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이 책들을 끄는 것은 내가 하고, 엄마는 자동차를 모을까? 이 책들을 다 끌 수 있겠어?”

“그럼요, 다 끌 수 있어요. 다 하고 엄마 도와드릴게요!”

“우와, 엄마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흐뭇하네. 네가 점점 성장하는 것이 보여 기쁘구나.”

2018년이라고 기록되는 새 날들을 맞고 계시지요? 맑고 향기롭게 사는 것 중 하나가 무소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물건들과 아이들의 장난감들이 무소유의 삶에 합당하신가요?

2018년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화장품 강좌 특성상 참여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데, 최근 비회원, 관광객의 참여가 많아 정장 본 모임 회원, 길상사 신도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부터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참여 가능자를 본 모임 회원과 길상사 신도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4년간 동결했던 강좌비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설법전에서 출발한 수채화 여행

글 • 윤현영



요즘 같은 엄동설한 때면 조류독감이 엄습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닭, 오리, 한순간에 몽땅 생매장 당합니다. 지난여름에는 수백만 개의 달걀들이 느닷없이 버려졌습니다. 매일 우리의 식탁에서 사라지는 육축과 산산조각으로 깨트려지는 달걀, 굳이 종교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분리수거함에는 소임을 다한 달걀 상자가 굴러다닙니다. 달걀의 눈높이로 보면 달걀 상자는 어쩌면 그들의 관이 아닐까요? 계란 판이라고 불리는 울룩불룩한 상자도 처음에는 울창한 숲속의 아름드리나무였습

니다. 어느 날 툭날에 스러집니다. 고급 종지로 재탄생하지만 곧이어 또 버려집니다. 반복되는 재생의 순환 속에서 지금은 달걀 상자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다시 분리수거함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러나 작은 기적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거칠거칠하고 손바닥만 한 달걀 상자들이 저마다 뚜껑 속에 한 폭의 수채화를 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곳 길상사로 모여들었습니다.

화창한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갈한 설법전은 <인연과 운회>라는 주제의 전시회 공간이 되어주었습

니다. 연일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얗은 달걀 상자들은 그냥 버려질 운명이었으나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로 부활했습니다. 예술품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43명의 어른과 아이, 프로와 아마추어 화가가 한마음이 되어 공동으로 전시했던 108점의 수채화는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죽어간 수많은 생명체를 위한 회화적 보시였음을 나중에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침 세종문화회관에서 길상사에서 가졌던 우리 전시회를 의미 있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세종

문화회관 부설 광화랑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구내)에서 새롭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열두 명이 다시 모여 새로운 작품으로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광화랑>은 전문 갤러리이므로 달걀 상자 작품(60점)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크기의 수채화(30점)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수채화 감상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랑, 자비, 보시, 용서, 구원, 운회, 부활, 해탈... 언어적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종교나 윤리의 틀을 떠나서 우리 마음속 보편적 정



서는 언어 이전에 회화라는 예술로
교감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상사〉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
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상사에서 만들어준 인연으로
이렇게 두 번째의 달걀 상자 수채화
여행을 새해 벽두에 시작하는 기쁨
을 누리게 된 우리는 이 지면을 빌려

참여 작가 김미영, 김영애, 문영환,
박민선, 신영경, 오남식, 윤현영, 윤
혜란, 이근희, 이승호, 정민영, 황선
애 이상 12명 합작

전시회 일정 : 2018년 1월 17일 ~ 23일

전시회 장소 : 세종문화회관 부설 광화랑(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구내)

* 아래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준비중인 작품 일부입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 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부금 > 발급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히 등록한 후원자님은 2018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이용하기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 로그인 > 참여후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도 후원 내역,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확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총무팀 02.741-4696)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원자 본인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발송 비용 절약으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사)맏고 향기롭게 국민추천포상제도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추천포상은 사회봉사 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단체),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 인명 구조, 생명 보호 헌신, 환경 보호, 국제구호 등의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귀감이 된 사람과 단체에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사)맏고 향기롭게는 그동안의 장학사업, 결식사업, 환경사업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7년 대통령 표창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체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에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포상 대상자 선정부터 공적심사와 포상 규모 결정까지 세밀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수여됩니다. 현재 시상식 일정은 미정이지만, (사)맏고 향기롭게 회원님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과 함께 공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상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 원만회향

지난 12월 17일(일) 맏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법회가 봉행되어 헌다, 헌화, 길상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길상사 개원 당시 영상과 법정 스님께서 들려주는 창건 말씀, 이계진 전 이사 축사, 주지 스님 감사 말씀, 길상사 신도 및 (사)맏고 향기롭게 모범회원&봉사자 감사패 시상, 길상사 재무보고 등의 순서로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당일에는 길상사 신도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길상사의 창건 20주년을 축하하였습니다.

감사패 수상자는 후원부문으로 박수안, 허길자 회원님이 선정되었고, 봉사 부문으로 최명자(반찬 나눔), 김정석(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 이찬희(전화말벗 봉사팀), 홍혜련(이류리품 봉사팀), 김경옥(진인노인요양원 봉사팀) 회원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오후 1시 30분, 설법전에서 길상사 창건 역사와 함께하는 합창단의 창단 20주년 기념법회도 봉행되어 축하해드렸습니다.

봉사팀별 송년모임 진행

(사)맏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별로 송년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활동을 마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봉사자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해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본 모임이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모든 회원님과 봉사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양보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길상사 신행단체회와 신도님의 관심과 참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천연화장품 강좌는 만들어 쓰는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만 끼치며,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생태적인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입니다.

맏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 격월로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에 변동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화장품 강좌 특성상 참여 인원 수에 제한이 있는데, 최근 비회원 및 관광객의 참여가 많아 정작 본 모임 회원과 길상사 신도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본 모임 자연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후원회원(신규 회원 포함), 길상사 신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참여 가능 : 본모임 후원 회원(전년도 후원금액 3만원 이상), 길상사 등록 신도 / 본모임 신규 회원은 최초 후원금 납부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참여가능
- 할인가 적용 : 회원 가입 후 후원하신 금액이 3만원 이상+3개월이 지난 회원만 할인가 적용됨
-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해 4년간 동결했던 강좌 참가비 조정
- 강좌 참가비 안내

짜수달	제품	용량	참가비	할인가	비고
1째 주	샴푸	250ml	12,000	10,000	1인당 4개까지
2째 주	로션	100ml	12,000	10,000	1인당 5개까지
3째 주	에센스	100ml	11,000	9,000	1인당 5개까지
4째 주	비누	1000ml	11,000	9,000	1인당 2개까지
	스킨	100ml	5,000	4,000	1인당 5개까지

- 1인당 만들어 가는 수량은 초과가 불가합니다.(재료 관리, 형평성 문제)
- 해당 강좌는 본 모임의 일정, 공휴일, 강사의 사정, 참여 인원이 적을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일정 : 짜수 달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길상사 내 세계일화실(맏고 향기롭게 소모임방)



연말 김장을 담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모임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김장'을 전달했습니다. 11월 30일(목)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과 길상사에서 회원, 길상사 신도와 KTX나눔이회 봉사자 등 1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8500kg 분량의 김장을 담아, 12월 1일(금)에 23개 주민센터의 480가구에 각각 김장 15kg씩을 전달했습니다. 또 월곡청소년센터와 해광 맹인복지회 등에도 김장을 지원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2018년도 달력 발송 안내

본 모임은 11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회원님에게 새해 달력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달력 발송 때마다 벽걸이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어 받지 못했다는 분, 달력 고리나 스프링이 파손되었다는 분 그리고 길상사와 중복된다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벽걸이 달력을 받고자 문의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길상사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 중무실로 방문하시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중에서 탁상용 달력을 우편으로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확인 후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분도 있으니 이사하고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서는 사무국

으로 연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부 목적으로 12월에 후원하신 분과 반송 후 주소 확인된 분은 1월에 일괄적으로 우송해드립니다.

중앙모임 임기제 대의원 추천 및 지원 받습니다.

본 모임 정관과 중앙모임 운영규칙에 따라 본회 목적과 뜻에 공감하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순수하게 동참할 임기제 대의원을 추천 및 지원받습니다. 본회 사업과 회계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신 분으로 세무사, 회계사, 수행과 NGO활동, 사회복지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방문
- 추천 및 지원기간 : 2018년 1월 20일까지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약 5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기다려지는 의미 있는 자원활동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원들과 함께 꾸준히 참여하실 뜻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은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져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 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

(23일)/오후 1시 30분/다라니 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20, 27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아동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 찻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벗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말벗봉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정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대구, 경남, 광주모임은 지부로登記되어 있으며, 부산모임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8회차 기도가 1월 10일(수)에 입재되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신정합동차례

- 일시 : 1월 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월 4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월 6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금강경 기도 7회차 회향

- 일시 : 1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1월 10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금강경 기도 8회차 입재

- 일시 : 1월 1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월 13일(토) 오후 8시 00분 ~ 1월 14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월 1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불교대학 8기 졸업식

- 일시 : 1월 20일(토)
- 장소 : 설법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 일시 : 1월 23일(화) 오후 9시 ~ 1월 24일(수) 새벽 4시
- 장소 : 극락전

성도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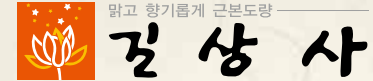
- 일시 : 1월 24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 일시 : 2월 2일(금) 오전 9시 50분
~ 2월 4일(일) 오전 9시 50분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신정합동차례	1월 1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월 1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월 4일(목)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1월 6일(토)	저녁 6시	극락전
금강경 기도 7회차 회향	1월 9일(화)	오후 2시	극락전
관음재일	1월 10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금강경 기도 8회차 입재	1월 10일(수)	오후 2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월 13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1월 17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불교대학 8기 졸업식	1월 20일(토)	추후 안내	설법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1월 23일(화)	저녁 9시	극락전
성도재일	1월 24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월 31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2월 2일(금) ~ 4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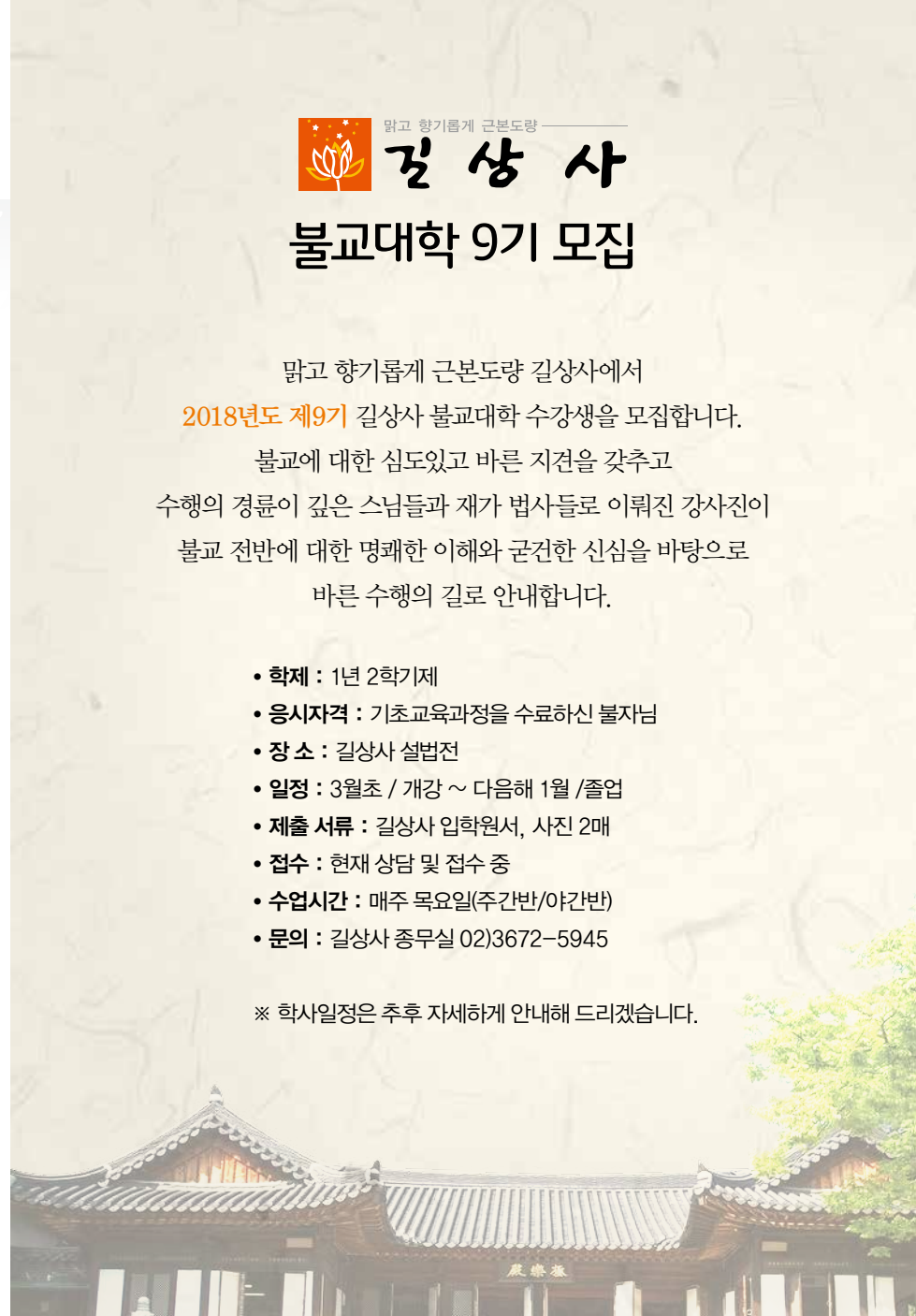


불교대학 9기 모집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8년도 제9기 길상사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 법사들로 이뤄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 학제 : 1년 2학기제
- 응시자격 :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 일정 : 3월초 / 개강 ~ 다음해 1월 /졸업
- 제출 서류 : 길상사 입학원서, 사진 2매
- 접수 : 현재 상담 및 접수 중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주간반/야간반)
- 문의 :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 학사일정은 추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외로운 이들, 결식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니다

